

INTERIORS

Artist's Palette

April, 2016 |

page 1 of 4



THEME / COLORFUL ELEMENT · COLORFUL SPACE

지난 3월 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시 '빨주노초파남보 Artist's Palette'는 가장 즉각적인 시각 경험과 이를 통한 의미 전달이 가능한 '색채'를 주제로 삼아 온 작가 박미나가 색 이면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자리이다. 전시는 유채색과 무채색 영역으로 나뉘어 구성되었다. 유채색 부문은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왔던 우리 동네의 색 풍경을 벽화로 재현한 작업과, 표정을 담은 이모티콘 회화를 통해 개인적,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감정을 전달하는 색을 환기하도록 하는 표정 문자 그림,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 그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형형색색의 매력적인 조각으로 제시함으로써 눈으로 보는 것과 그 이면의 관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작업들로 이루어져 있다. 무채색 부문에서는 흰색과 검은색, 그리고 빛과 어두움의 비율에 따른 회색의 단계를 살펴볼 수 있게 하는가 하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흰색과 검은색 물감만을 이용하여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제조사나 재료에 따라 발생하는 색의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이번 전시는 단순한 색에 대해 주목하는 것을 넘어, 착시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선 원근법을 그린 공간을 통해, 우리 눈이 본다는 것과 사물을 인식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어떤 것을 '보았다'는 것이 곧 그 자체로 '사실 (fact)'을 의미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한다. 주변의 색을 새로운 시선으로 관찰할 뿐 아니라 색이 가진 다양한 형식적, 내용적 스펙트럼을 깨닫고, 본다는 것과 인식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이번 전시는 오는 7월 24일까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계속된다.

참여작가 박미나 | 그래픽 디자인 숨겨진 이면 | 사진 유희영/유류 / 남기훈
문의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02)2124-8920, sema.seoul.go.kr

빨주노초파남보

ARTIST'S PALETTE



2016년 1월 1일 등나무 근린공원에서
2016, 벽에 수성페인트, 라인테이프

'2016년 1월 1일 등나무 근린공원에서'는 색을 '수집'하고 '정렬'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작업을 선보인 작가의 결과물이다.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롭게 제작한 벽화 작업에서 작가는 미술관이 위치한 노원구의 풍경을 직접 차량과 도보로 이용하여 조사하고, 지역의 공공 색을 추출하였다. 작가는 미술관 앞 '등나무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주변을 걸으며, 풍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와 쇼핑물을 비롯하여 현수막, 표지판, 바닥의 아스팔트와 도로 중앙선까지 특유의 시선으로 지역색을 관찰, 채집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총 45개의 색을 정렬하여 색 드로잉을 제작하였다. 이 작품은 1980년대 말 팽창하는 도시인구 수용을 위해 일률적으로 지어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을 색으로만 표현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마주하였던 우리 동네의 색채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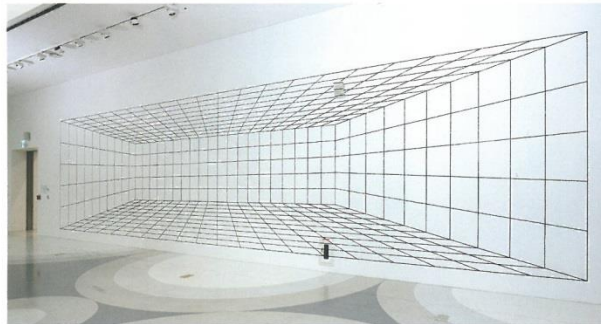
84색 드로잉
2016, 색칠공부 위에 크레용

84점의 색 드로잉은 색칠공부 도안 위에 84색 크레용으로 전면을 칠한 뒤, 크레용 제조사에서 정한 순서에 맞춰 배열한 작품이다. 작가는 색이 가진 이미지와 그에 따른 색의 명칭을 시대별 그리고 제조사별로 달리지는 색채의 흐름과 소비자의 기호를 드러낸다. 84점의 번역된 색 이름들은 색이 전달하는 이미지나 상징을 나타내고, 색으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매일 무의식적으로 색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우리의 기준과 동기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2014년 검은색, 2016년 흰색
2014, 2016, 린넨 위에 유채

검은색과 흰색은 상징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서로 대비를 이루는 색이다. 작가는 검은색과 흰색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보여주기 위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흰색, 검은색 물감을 수집하여 같은 크기의 캔버스에 작업하였다. 각기 다른 회사의 유품물감들은 이미 '만들어진(ready-made)' 검은색과 흰색들로, 작가의 주관적 개입을 배제하고 '검은색(Black)'과 '흰색(White)'의 명칭이 포함된 모든 물감을 수집하여 작품화함으로써 색감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만큼 시대와 문화에 따른 상징체계와 의미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2014년 검은색에서 55개의 다양한 검은색은 명칭이 같은 색일지라도 제조사와 안료에 따라 미묘하게 다른 색과 느낌으로 표현되며, 물감이 건조된 이후의 질감도 각각 각색이다. 이 작품은 2013년 국제갤러리 개인전 <Grey & 12>에서 처음 선보인 기본색 계열에 대한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업으로, 기존의 검은색을 글자의 색으로 분류한 회화에서의 규칙에 반하는 작가의 또 다른 형식 실험 연작이다. 55개의 다양한 검은색은 명칭이 같은 색일지라도 제조사와 재료에 따라 미묘하게 다른 색과 느낌으로 표현되며, 물감이 건조된 이후의 질감도 각각 각색이다. 78점의 흰색의 경우, 투명하고 따뜻한 느낌을 전하는 흰색부터 불투명하고 차가운 느낌을 주는 흰색까지 다채로운 시각 경험을 제공한다.



선
2016, 벽에 라인테이프

작가는 설정된 덩벙 글꼴(font)에 따라 출력된 덩벙 이미지를 화면에 재구성하여 감정이 담긴 표정 문자 회화를 제작하였다. '덩벙(dingbat)'이란 디지털 환경에서 글자와 함께 사용되는 기호를 의미한다. 해독이 불가능해 보이는 작품 제목은 작품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사용된 덩벙 이미지들로, 한글 자판을 누르면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나 도형처럼 기호들, 즉 덩벙 이미지가 출력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제작된 작품들은 '거드름 피우는', '두 주먹 불끈?' 혹은 '늠름한', '주눅이 든...'과 같이 여러 종류의 감정을 드러낸다. 이처럼 작가는 '색'을 통해 느낀 감정을 표정 문자로 전환함으로써 색과 이미지의 관계를 생각하게 함은 물론 색 자체가 갖는 의미 전달력을 환기시키고 있다. 배경이 되는 격자무늬는 선 원근법에 의한 착시효과를 일으켜 2차원의 평면에 공간감과 깊이감을 주는데, 선뿐 아니라 색 역시 거리에 따라 혹은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은 물론 우리 시각과 인식의 오류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한다.